세상 무엇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불교로 읽는 古典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대심 조현춘 거사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 회장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다 옳은 줄 알았다. 대학생 시절에는 책은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척하고 잘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쓴다' 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기로 했고, 특히 철학 책은 읽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철학 책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 는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논리학과 교육부

'과학은 증거논리적 지식' 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이 증거논리적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은 과학을 초월하여 더 크고, 더 거대하고, 더 많은 지식, 가능한 지식들의 합' 이라고 본다. 철학의 핵심은 논리학이며, 논리학은 현명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간에 교류하고 설득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인지적 교육 혹은 지식 교육의 기본은 논리학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논리학이 이러한 과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논리학의 기본개념은 '충분조건, 필수조건, 필수충분조건' 일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논리학의 기본개념 역시 '충분조건, 필수조건, 필수충분조건' 이다. 교육부에서는 '필수'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 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왔다. '필수조건' 혹은 '필수충분조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조건' 혹은 '필요충분조건' 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왔다. 다음은 논리학 책의 일부이다.

1. 우리가 'A' 는 'B' 의 필수조건(교육부의 공식 용어로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오로지 'A' 가 만족될 때에만 'B' 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 가 없다면 'B' 가 일어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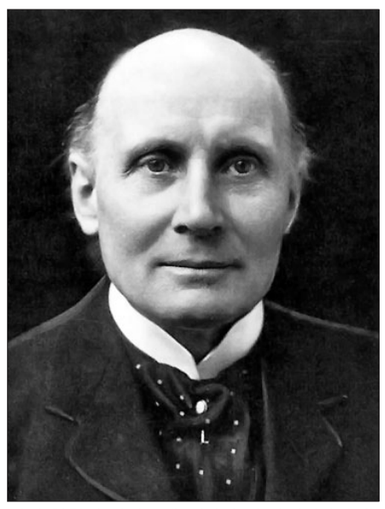
2. 우리가 'A' 는 'B' 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A' 가 만족될 때에는 언제나 'B' 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논리학을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 대한민국의 논리학자들을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 말썽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아예 빼어버리려는 교육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운 마음도 약간은 생긴다. 논리적 서술이라는 논술고사는 버젓이 두면서 논리학의 가장 기본인 명제와 조건을 교육과정에서 없애버리려는 교육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약간은 생긴다.

인간 화이트헤드

지구를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나누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한 것 같다. '물질과학 혹은 물질철학은 서양이 우세하고, 정신과학 혹은 정신철학은 동양이 우세하다' 고 본다. 과학이 아닌 윤리, 도덕, 종교, 철학의 영역에 있던 심리학이 과학의 영역으로 나온 것은 1879년 서양에서다. 서양상담심리학을 공부하던 나는 서양상담심리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동양상담심리학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했다. 논어를 공부하였고, 도덕경에 매료되었으며, 금강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철학에서조차도 국내 학자가 쓴 책' 보다는 '서양 학자가 쓰고 국내 학자가 번역한 책' 이 인기가 있고, 진짜 책인 것처럼 대접받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 철학자로서 아마도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철학자, 미국의 6대 전통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의 대표작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광스럽고 기쁘다.



서양 철학자 화이트헤드(사진 왼쪽)와 〈화엄경〉 법성게도(사진 오른쪽). 변화하는 우주를 설명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법성게는 데칼코마니처럼 맞닿아 있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우주 논한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 〈화엄경〉 법성게와 맞닿아

화이트헤드는 근대 (서양)철학의 사고구조와 사유양식을 신화로 보면서 과감하게 공격하며 초월할 것을 주문한다. 따라서 근대 철학의 사고구조와 사유양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조차도 매우 어렵다. 근대 철학에서 말하던 힘, 시간, 공간, 지각, 인과성, 질서, 느낌 등의 정지된 주제들에 대해 과정적 우주론적 도식으로 제시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대 철학의 함정에 깊이 빠져있다. 오직 근대 철학만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부정하면서도, 부정하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일차 방정식만을 아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일차 방정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는 일차 방정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이차 방정식, 삼차 방정식, 사차 방정식, 오차 방정식도 있는데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화이트헤드의 사상적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제 1기는 수리논리학을 집대성하여 '수학원리' 를 출간하고, 수학자 논리학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제 2기는 자연과학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인식의 원리에 관한 연구' '자연의 개념' '상대성 원리' 등을 출간하여 과학철학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제 3기는 앞의 경력들을 바탕으로 유기체 철학에 심취하여 '과학과 근대세계' '과정과 실재' '관념의 모험' 등을 출간하여 독자적인 형이상학 철학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화엄경과 유기체 철학

이 원고 청탁을 받고, 〈과정과 실재〉를 다시 보며 어렸을 적 경험이 계속 나와 같이 했다. 5, 6세경이었나 보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메다가 밤이 되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광활하고 황홀하고 찬란하고 곱고 빛나는 밤하늘의 우주를 본 적이 있다. 참으로 좋았다. 동시에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강압적인 죽음의 심연이었다.

'이때의 밤풍경이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와 유기체 철학의 세계와 참으로 닮았다는 사실' 에 지금 나는 경탄한다. 나의 경험이 하나의 우주라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세계는 열 개 정도의 우주이며,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는 백천만억 우주보다 더 큰 우주이다.

근대 철학이 비교적 정지된 지구를 논한다면, 화이트헤드의 체계 철학, 유기체 철학은 '변화하고 움직이는 우주' 를 논한다. 화이트헤드는 '변화와 움직임 속에 있는 과정' 을 논한다. 전통적 추상 개념인 '대상' '시간' '공간' 을 상호관계하면서 생성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본다.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을 사건 속에 나타나는 형상으로 본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은 없다. 즉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방대한 〈화엄경〉을 의상대사가 요약한 법성게는 화이트헤드의 체계 철학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

'하나안에 일체있고 일체안에 하나있어 / 하나가곧 일체이며 일체가곧 하나이다/ 한티끌은 온우주를 고스란히 머금었고/ 낱낱티끌 각각마다 온우주를 품었구나' (무비 스님 · 화엄경과 화이트헤드연구회 역)

화이트헤드는 모든 것을 상호 내재성으로 본다. 데카르트의 실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가 '데카르트의 실체적 개념' 을 부정했다고 보면 곤란하다. 실체적 개념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 나온 초판에서 수 백 개의 오류가 있었고, 영국 케임브리지판과 미국 맥릴런판 사이에 300개가 넘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자신의 세계에 함몰되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만큼 독창적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교정에 대해 소홀히 했던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분노와 찬사를 느낀다.

〈과정과 실재〉를 읽으려는 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한다. 한글판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필요' 는 원칙적으로 '필수' 이며, '필연' 도 원칙적으로 '필수' 이며, '책임(책임성)' 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 이다. 위상((phase)과 단계(stage)는 의미가 다르지 않으며 동의어이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